

2007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㉓	2	㉑	3	㉔	4	㉕	5	㉕	6	㉔	7	㉔	8	㉔
9	㉕	10	㉓	11	㉓	12	㉑	13	㉑	14	㉒	15	㉓	16	㉓
17	㉒	18	㉕	19	㉓	20	㉒	21	㉕	22	㉔	23	㉕	24	㉓
25	㉓	26	㉒	27	㉕	28	㉒	29	㉓	30	㉓	31	㉑	32	㉑
33	㉒	34	㉕	35	㉔	36	㉒	37	㉓	38	㉔	39	㉒	40	㉔
41	㉑	42	㉔	43	㉔	44	㉓	45	㉑	46	㉑	47	㉕	48	㉒
49	㉒	50	㉕												

해설

[1번] 이제부터 음악과 함께 남녀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노사연, '만남' 시작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남 : 영화야, 오늘은 한가한 모양이구나. 음악도 다 듣고.....
여 : 응, 수행평가 과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중가요 노랫말 중에서 잘못 쓰인 어휘를 찾아보고 있어.
남 : 그래? 어떤 걸 찾아 봤는데?
여 : 조금 전에 들었던 '만남'이란 노래, 너도 알지? 어른들이 자주 부르잖아. 그런데 그 가사 중에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하는 부분 있지? '바람'을 '바램'으로 잘못 썼는데도 이 노래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램'을 바른 말로 알고 있을 정도야.
남 : 맞아. 대중가요는 국민들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노랫말을 지을 때는 어휘를 정확하게 쓰는 태도가 필요해.
여 : 물론이지. 여기 좀 봐. 내가 지금까지 찾아본 건데 우리가 부르는 가요에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어휘들이 많이 있잖아.
(사이)
남 : 어~, 이진 방금 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1. [출제의도] 대화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중가요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남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자는 '바람'이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에서는 이를 '바램'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지에 제시하고 있는 대중가요의 노랫말 중, ㉓만 대화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㉔에서 '목메어도'는 적절하게 쓰인 어휘이다.

[오답풀이] ㉑에서는 '만날'이 '맨날'로, ㉒에서는 '설렘'이 '설레임'으로, ㉕에서는 '발자국'이 '발자욱'으로, ㉕에서는 '메워'가 '메꿔'로 각각 잘못 사용되고 있다.

[2번] 이번에는 과학 강의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사려고 할 때의 뇌 활동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공명영상 장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장치로 촬영해 보니까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뇌는 3단계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상품을 보는 단계, 가격을 확인하는 단계, 상품과 가격을 놓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단

계가 바로 그것인데, 단계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대뇌 측좌핵'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쾌락과 관련된 건데, 갖고 싶은 상품을 보았을 때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집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는 상품 가격을 알아보겠지요? 여기 이 '뇌섬엽'은 상품의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때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전두엽 피질'은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될까요? 이것은 상품을 샀을 때의 쾌감과 돈의 지출로 생겨날 고통을 저울질해서 상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할 때 활성화됩니다. 말하자면 '전전두엽 피질'은 고등사고를 관장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작용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2.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듣고 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샀을 때의 쾌감과 돈의 지출로 생겨날 고통을 저울질해서 상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의 내용에 따를 때, 그림의 그래프에서는 '전전두엽 피질'의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품을 구매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남) : 요즘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 읽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책이 너무 무겁고 판형이 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 책들은 왜 이렇게 무겁고 큰지 강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여) : 같은 쪽수의 책을 기준으로 미국 책과 우리나라 책의 무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300쪽 분량의 미국 책의 무게는 240g 정도인데, 우리나라 책은 450g으로 그 두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책이 무거운 가장 큰 이유는 종이의 무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종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충전재로 쓰이는 돌가루가 미국 책의 경우는 전체 종이 원료의 8%를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 책의 경우는 그 세 배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출판 관계자의 말입니다.

관계자(남) : 우리나라 독자들은 종이의 질이나 판형의 크기 등 외형적인 면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독자들의 성향에 따르다 보니 자연히 책이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기자 :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 읽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의 외형이 독서의 생활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평균 독서량이 한 권 꼴로, OECD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독서 현실, 그 이면에는 책의 내용보다는 겉모양에 치중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출제의도] 뉴스를 들을 때,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뉴스에서 기자는 먼저 우리 책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다. 우리 책이 미국책보다 무거운 이유를 종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충전재로 쓰는 돌가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체적 수치를 동원하여 밝히고 있다(ㄴ). 그리고 책이 무겁고 크기 때문에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방해가 되어 결국 우리 국민의 한 달 평균 독서량이 한 권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ㄷ). 우리 국민의 독서 생활화 방안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독서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다.

[4-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 중 해외 어학 연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 교수(남) : 예, 저는 이 문제를 필요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해외로 연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회자 : 네, 그러면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교수(여) : 영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에 영어를 얼마나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층간에 위화감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연수 경비가 외화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교수 : 외화를 낭비한다고 걱정하시는데,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내에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현지에서 직접 부딪치며 배우는 영어만 하겠습니까? 효과가 크다면 그에 따르는 비용은 당연히 지불해야지요.

이 교수 : 김 교수님 견해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 면만 보고 효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을 겨냥해서 부실하게 급조한 연수 기관이 많습니다. 또한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다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목적이려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어마을 같은 국내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교육 시설을 갖추고, 강사진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 : 글쎄요. 외국에서 생활해 보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이 생기고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여행보다 좋은 교육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 : 물론 청소년기의 여행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해외 어학 연수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 애가 가니까 우리 애도 보낸다는 식으로 아이를 보냈다가 아이가 적응을 못해 고생만 하다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국내 교육기관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4. [출제의도] 토론을 들으면서 토론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토론에서 여자 교수는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 중 해외 어학 연수가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자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짧은 기간의 연수 효과에 대한 의문, 과도한 연수 비용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계층간의 위화감, 학습 효과에 비해 과도한 외화의 낭비 등을 지적한다. 이어서 여자 교수는 부실한 외국 연수 기관에 대한 불신감, 본래의 목적의식을 상실한 연수자의 문제점,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거둔 학습 효과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토론에서 여자 교수는 ⑤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남자 교수의 말을 부분적으로 긍정한 후에 반론을 펼친다. 첫 번째 발언을 하기에 앞서 ‘영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두 번째 발언을 하기에 앞서 ‘김 교수님 견해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세 번째 발언을 하기에 앞서 ‘물론 청소년기의 여행이 좋기는 합니다.’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인정한 후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것이다. 남자 교수는 설의적인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③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말하기 방식은 아니다.

6. [출제의도] 분류적 사고를 통한 연상하기와 적용하기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우선 착안점으로 주어진 ㄱ과 ㄴ은 서로 상이한 기준(‘모양-쓰임’)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모양은 비슷해도 쓰임이 다른 경우(ㄱ), 모양은 비록 다르지만 동일 목적 아래 세트로 구성된 경우(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 소재가 무엇이 있는지를 주어진 그림에서 확인한다. 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b(지렛대 원리)가 있다. 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a, c가 있다.

이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한다면 ㄱ은 ‘나’ 항목(겉으로는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직업, 가치관 면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에, ㄴ은 ‘다’ 항목(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협심하며 제 역할을 다하는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관련 소재의 d는 착안점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쓰임이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항목과 연결되는 그림은 연상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7. [출제의도] 내용에 따라 글감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1]은 1인당 쌀 소비량의 변화를 드러내며, [자료 2]는 쌀 대신 소비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3]은 쌀 소비 감소의 사회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 4]는 쌀 소비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인터뷰 자료이다. 문두에서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쓴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성격에 맞는 자료를 사용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④의 경우, [자료 2]를 통해 영양의 균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으며, [자료 4]를 통해 소비 증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자료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에 제시된 쌀 소비 감소 현황의 원인을 [자료 2]에 제시된 대체 식품의 증가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자료 3]은 사회 변화로 인한 식사량 자체의 감소를 쌀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③ [자료 4]에 제시된 농민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자료 1]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 4]에 제시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료 3]의 웰빙 바람을 이용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글의 목적, 순서, 방법, 글감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된 개요의 수정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청소년 봉사 활동을 화제로 각각 서론에서 봉사 활동의 의의와 실태, 본론에서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 결론에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순서로 개요가 작성되고 있다. 본론에서 ㉔은 ‘청소년 봉사 활동 의무 시간 확대’를 활성화 방안으로 추가하는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데, 본론 1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항목과 어긋나므로 잘못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론 1-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신 자세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봉사 활동 의무 시수를 확대하여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㉔의 활성화 방안은 본론 2에 추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답아야 할 내용은 책 읽는 기쁨, 미래를 위한 유용한 정보의 획득이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대구와 비유를 답아야 한다. ⑤는 형식적으로 두 개의 구가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책과 도서관을 ‘친구’, ‘요람’ 등에 비유하고 있다. 내용으로도 책과 즐거움을 연결하고 있고, 도서관을 미래 개척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으니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내용이 조금 미흡하고 대구는 되어 있으나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② 도서관에서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 없고, 표현도 대구만 있다. ③ 내용은 충족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비유적 표현만 있을 뿐 대구가 없다. ④ 내용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구의 표현만 있을 뿐 비유가 나오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글을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을 ‘그렇기 때문에’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을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출제의도] 불완전 동사의 활용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데리다’처럼 용언의 활용이 온전하지 못하여 제한된 어미하고만 결합하는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한다. 그런데 ③의 ‘모시다’는 ‘모시고’, ‘모셔’, ‘모시게’, ‘모시면’, ‘모시지’ 등 다양한 어미와 제한 없이 결합할 수 있으므로 불완전 동사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달라고’의 기본형은 ‘달다’인데,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뜻의 불완전 보조 동사로서, ‘달라’, ‘다오’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② ‘즈음하여’의 기본형은 ‘즈음하다’인데, 이 말은 ‘즈음하여’, ‘즈음한’ 등으로는 활용하지만 ‘즈음하게’, ‘즈음하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④ ‘서슴지’의 기본형은 ‘서슴다’인데, 이 말은 ‘서슴지’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⑤ ‘더불어’의 기본형은 ‘더붙다’인데, 이 말은 ‘더붙고’, ‘더붙어’ 외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를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불세출’은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테두리’는 ‘죽 둘러서 친 줄이나 금 또는 장식’ 또는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팔불출’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며, ‘변두리’는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가 되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밀반출’은 ‘물건 따위를 몰래 국외로 내감’을 뜻하며, ‘넋두리’는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함’을 뜻한다.

[13-17] 현대시

<출전> (가)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나) 도종환, ‘등잔’
(다) 이황, ‘만보(晩步)’

1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의 화자는 고통스런 현실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성찰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의 화자 역시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오답풀이] ②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③ (나)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다. ④ (가)~(다) 중에 해당되는 작품이 없다. ⑤ (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나)와 (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출제의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가)의 시인은 <보기>에 주어진 바와 같이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는 식민지 조국을 떠나 자신만 편안하게 공부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자괴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를 극복하고 있지만, ②와 같이 자신이 시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억누리는 상황이라고 느꼈다거나 그에 대한 자조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②의 ‘시인이란 슬픈 천명’은 독립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15. [출제의도] 시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의 주제는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스스로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며 자족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지은 시조는 ③과 같은 시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③의 조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했으며, ‘열매’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고, ‘이 마음 지켜 넉넉히 살겠노라’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에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다.

16. [출제의도] 시상 전개와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다)에서는 가을걷이가 가까워져 무르익은 들녘,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방앗간이며 우물터에서는 가득한 수확의 기쁨 등 모든 것이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오로지 이룬 것이 없다. 책을 뽑아 놓고 흠어진 걸 정리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내면이 외부 상황의 풍요로움과 대비되어 있다.

17. [출제의도] 시구에 내포된 시인의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의 화자가 ‘시가 쉽게 씌어진다’고 느낀 것은 암울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지 못하고 시인으로서 안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나태함이 아니라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며 자신을 반성하는 심리가 내포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8-21] 사회 제재

<출전> 백옥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18.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사이드워크’와 ‘포인트캐스트’를 사례로 들어 논의 대상인 ‘사이버 언론’의 발전 양상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⑤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서는 기존 거대 언론의 특징과 사이버 언론의 특징을 대조하여 설명하고는 있으나 상반된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이 글의 논의 대상은 ‘사이버 언론’인데 그 구성 요소를 기능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9. [출제의도]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문단에서 기존의 거대 언론이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든 것에 대해 글쓴이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 문단을 참조하면, 사이버 언론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매체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으로 네티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언론이 거대 언론이 사용했던 뉴스 생산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한 ③은 사이버 언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은 4문단, ②는 1문단, ④는 2문단, ⑤는 1문단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가 일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의 ‘디딤돌’은 ‘디디고 다닐 수 있게(역할)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사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구조가 ‘버팀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간장독’은 ‘간장(사물)을 담아 두는 독(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간장’이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에 담긴 물건’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림질’은 ‘다리미질’의 준말로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물+행동’의 구조를 갖고 있다. ④ ‘국화차’는 ‘말린 감국(甘菊)의 꽃을 끓인 물에 넣어 우려낸 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재료+사물’의 구조를 갖고 있다. ⑤ ‘잔칫상’은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 음식을 차려 놓은 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용도+사물’의 구조를 갖고 있다.

21.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3문단에서 ‘포인트캐스트는 기존의 여러 거대 언론 매체를 하나의 웹 사이트에 모은 후 독자가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부문만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 것에서 포인트캐스트의 특성을 밝힌 ‘신문의 신문’은 ‘각종 언론의 기사를 통합하여 분류해 놓은 신문(⑤)’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3문단에서 ‘사이드워크는 지역 생활 정보를 맞춤 정보 서비스로 제공’하였다고 한 것에서 ③은 포인트캐스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이드워크에 대한 설명임을 판단할 수 있다.

[22-25] 고전소설

<출전> 작자 미상, ‘옥낭자전’

22.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대표적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시업이 부사의 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나 그렇다고 선악 대결을 벌이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감상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이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옥랑이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례를 들어 말하지는 않았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시업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스스로 지은 허물이라고 하면서 옥랑의 청이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시업은 옥랑의 계획을 다른 사람이 알면 재앙이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옥랑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하여 말하고 있다. ③ 옥랑은 시업이 자신을 만류하는 것이 의리에 적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④ 옥랑은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윤리적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나 행동을 추리하여 내용의 적절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옥랑의 행동은 유교적 대의명분과 관련된 아녀자의 도리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가문에 미칠 재앙이나 화를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옥랑은 시업을 만나서 부부간의 의리가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② 시업은 옥랑과 혼인을 맺으려 오는 도중 뜻밖의 일을 만나 옥에 갇히게 되었다. ④ 옥랑은 남자로 변장하여 시업의 옥살이를 대신하려 한다. ⑤ 옥랑은 부모님께는 시업의 얼굴이나마 보고 곧 돌아오겠다고 허락을 얻었다.

25. [출제의도] 고전소설의 진술상의 특징의 하나인 편집자적 논평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의 ㉔는 시업이 드디어 옥랑의 청대로 옷을 바꿔 입고 옥문을 나가려는 장면으로서 그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 대해 ‘슬프지 아니하리오.’라는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서술자 자신의 직접적인 논평이 이루어지고 있다.

[26-28] 인문 제재

<출전> 함한희, ‘인류학적 역사학’

26. [출제의도] 중요 개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앞부분을 보면 인류학적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인류학적 역사학은 역사학에서 옛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체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 학문의 중심은 당연히 역사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인류학의 연구처럼 하듯이 일반 민중의 일상의 기록을 역사가의 시각으로 살피는 학문인 것이다. 따라서 인류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역사학의 연구에 인류학의 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거를 연구할 때 인류학자가 낯선 문화를 살피듯이 기록물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통하여 ㉑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의 내용을 보자. 전라도 부안에 살았던 한 사대부 집안의 기록을 통해 17세기만 해도 재산 상속과 제사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조선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하는 기존의 인식을 달리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류학적 역사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속담을 활용하여 제시된 지문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인쇄소 주인이 견습공들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호

사스러운 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어울리는 속담은 ‘자기 일이 아닌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내 배 부르면 종놈 배고픈 것 모른다.’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세간이 없어서 서발이나 되는 막대를 휘둘러도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매우 가난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③ 속으로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함의 비유. ④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다.

[29-31] 기술 제재

<출전> 천혜봉, ‘고인쇄 기술’

29.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구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2문단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과 목판 인쇄술을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쓴이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목판 인쇄술에 비해 활자를 만들고 책판을 배열하는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속 활자가 여러 종의 책을 인쇄할 수 있으며, 보존 기간 면에서 목판보다 길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정리한 내용들 중에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제작 시간은 ‘오래 걸린다’가 아니라 오히려 ‘적게 걸린다’로 정리되어야 한다.

30. [출제의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선시대의 금속 활자 제조 과정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정교하게 새겨 만든 어미자를 거꾸집에 박은 후, 거꾸집에 가지쇠를 박는다.(㉑) 그리고 위 거꾸집을 덮고서 흙을 다져 넣은(㉒) 후, 가지쇠와 어미자를 거꾸집에서 빼낸다.(㉓)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위 아래 거꾸집을 합쳐서 고정시키고 쇳물을 붓는다.(㉔) 쇳물이 식으면 활자들이 매달려 있는 쇠를 꺼낸다.(㉕)

31. [출제의도] 기술의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고려시대에 사찰의 금속 활자 제조 방법은 3문단에 설명되어 있다. 밀랍을 이용한 점이 특징인데, 밀랍은 재질의 특성상 주형을 만들어 구울 때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밀랍에 새겨 만든 글자는 한번밖에 글자 모형(母型)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똑 같은 주형을 두 번 이상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 때 사찰에서는 똑 같은 활자를 만들 수 없었다. 「직지심체요절」은 사찰 제래의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32-35] 현대소설

<출전> 최인호, ‘돌의 초상(肖像)’

3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변화를 추리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크게 보아 중락을 전후로 하여 ‘(1) 노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 (2) 다시 노인을 데려다 주기(버리기) → (3) 경희와 함께 노인을 찾아 나서기’의 세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이 글의 첫 번째 부분은 공원에서 치매에 걸려 버려진 노인을 만나 갈등을 일으키던 끝에 집으로 데려와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 ‘측은한 마음으로 손 잡아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 부분은 집으로 노인을 데리고 온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자신은 최소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노인을 아무 곳이나 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냉정히 마음 먹고 손을 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세 번째 대목은 내가 노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버린 후 경희와 함께 찾아나서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자격이 남아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마음은 그저 담담했다’라고 진술하는 대목에서 그저 착잡한 심리 상태임을 추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이 예사스러운(무덤덤한) 상태가 아니다. ③ 첫 번째 대목에서 불쌍히 여겨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뉘우치며 다시 찾아보는 것은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두 번째 대목[A]은 대화 없이 노인을 바라보며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나의 생각과 심경이 독백조로 진술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과거(‘처음부터 노인은 버려져 있었지 아니한가’ 등)와 멀지 않은 미래(‘이제 내가 취할 행동은 분명해진다’)를 오가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등장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1인칭)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므로(주인공 시점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여러 등장 인물(예컨대 노인, 경희, 공원 관리인 등)의 행동을 번갈아가며 서술한 대목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③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서술하는 것이지 다른 등장 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④ 서술자의 서술이 아닌, 등장 인물이 다른 등장 인물을 관찰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다.

34. [출제의도] 진술에 나타난 인물의 태도의 추리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노인에게 손을 잡힌 다음 이를 빼려는 순간, 불쑥 솟아오른 나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난 부분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엄중히 꾸중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이다. ㉡은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잖은가. 이걸 귀찮은 일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망설이며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양심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순간이다. ㉢은 갈등 끝에 그래도 노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양심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다. 그런데 ㉢의 경우 ㉠ 상태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에서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엄중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남과 연루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안일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주의적 면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인의 태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의식을 문제 의식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최인호 소설 ‘돌의 초상’은 현대 사회가 당면한 노인의 소외 문제 또는 인간의 사물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글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나’가 노인을 도로 내다 버리는 상황에서 노인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돌의 침묵으로 손을 내밀었고’, ‘천진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기서 죄를 지은 젊은 세대를 용서해주려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노인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빗속에서 울며 흐느끼며, ‘우린 나쁜 사람들이예요’라는 경희의 목소리는 반성적 목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등장인물의 행동에서 노인 세대나 젊은 세대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어낸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인간이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공원 등지에 버리는(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행위는 고귀한 인격체인 인간을 쉽게 버리는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태도이다.

[36-39] 언어 제재

<출전> 고등학교 문법(7차 교육과정) 교과서, ‘언어와 의미’

36. [출제의도]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언어의 의미가 지닌 개념과 의미의 유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의미의 개념은 지시설과 개념설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의미의 유형은 개념적 의미, 함축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및 반사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의미의 실체를 규정하기 어렵고 의미에 대해 학자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으므로 언어의 의미가 유동적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서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둘째 문단의 ‘지시설’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다. ③ 넷째 문단의 ‘정서적 의미’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의 ‘개념설’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셋째~넷째 문단의 의미의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여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개념 사이의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개념’을 의미로 보는 견해로서 개념과 지시물, 개념과 기호(말소리)의 관계를 그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관계를 요약하고 있는 것은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다. 말소리를 듣고 직접 떠오르는 것이 구체적 지시물이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이며,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호와 연결된다고 했으므로, 말소리와 개념은 직접적 관계, 말소리와 지시물은 간접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셋째 문단에서 개념은 구체적 지시물의 공통점을 뽑아 추상화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개념과 지시물도 직접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기호와 지시물만 간접적 관계로 연결하고 나머지를 직접적 관계로 연결한 ③번이다.

38.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의 끝부분에서 ㉡이, ‘아빠’와 ‘부친’처럼 개념적 의미가 동일한 둘 이상의 표현에서 어감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어떤 말이 그 말의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천연두’와 ‘손님, 마마’의 개념적 의미는 같은데, 앞의 것은 무섭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뒤의 것은 완곡한 느낌을 주므로 반사적 의미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는 ‘배신자’라는 사람 이름이 발음 때문에 원래 뜻과 관계 없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므로 반사적 의미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는 ‘꿈꿈하다’, ‘자상하다’는 ‘여성’의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되는 의미이므로 함축적 의미에 해당하며, ㉢는 “잘한다.”라는 말이 억양에 따라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므로 정서적 의미에 해당한다.

3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후 문맥상 ㉡은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내거나 뽑다.’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 ‘가려서’는 불량품을 가려 뽑는다는 의미하므로 ‘가리다’의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보이지 않게 또는 바로 통하지 않게 가로막다.’의 뜻 ③ ‘음식을 편벽되게 골라 먹다.’의 뜻 ④ ‘분별·구별하다.’의 뜻 ⑤ ‘낮선 사람을 싫어하다.’의 뜻.

[40-43] 예술 제재

<출전> 이주현, ‘토르소의 미학’

40. [출제의도] 글에서 언급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밀로의 비너스」는 작가가 의도한 토르소가 아니었다. 따라서 「밀로의 비너스」는 애초부터 토르소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머리와 팔다리를 생략함으로써 형성된 불안정한 신체의 형상에서 전신상과는 다른 예술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감상자에게 생략된 신체의 일부분을 상상해 보도록 유도하면서 감상자의 시선이 걷는 남자의 생동적인 근육에 집중되도록 하는 예술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토르소가 인체 구조의 비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①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용어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거티브 볼륨’은 조각 작품 주위에 형성된 파인 부분, 구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가의 의도에 의해 그 역할과 의미가 부여된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은 물질과 공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예술이라는 점과 ‘네거티브 볼륨’이 조각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볼륨’이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3.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탐색하여 그 용례와 적절하게 묶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실(消失)’은 ‘사라져 없어짐’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기2>의 ‘a’에 쓰일 수 있다. <보기1>의 ‘ㄱ’은 ‘손실(損失)’의 의미로 <보기2>의 ‘b’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기2>의 ‘c’에는 ‘떠내려가서 없어지거나 잃음’이라는 의미의 ‘유실(流失)’이 적용될 수 있다.

[44-47] 극문학(희곡)

<출전> 이강백, ‘파수꾼’

44. [출제의도] 작품에 제시된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울타리로 고립된 마을의 상황 뒤에 숨은 진실을 알게 된 파수꾼 ‘다’와 권력자인 촌장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파수꾼 ‘다’는 처음에 자신의 직분을 그대로 수행했지만 우연히 울타리 너머에 이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 진실을 알게 된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이리를 경계하는 파수꾼의 역할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③에 제시된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지문에 제시된 촌장의 첫 번째 대사에서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고 말한 것과 제시된 지문의 후반부에서 파수꾼 ‘나’가 들어온 이후 촌장에게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물하고 싶었는데…….’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파놉티콘이라는 감옥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담으로 싸여 있고, 중앙에 탑이 있으며 감시자에 의해 수감자들이 철저히 통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파놉티콘과 마을의 상황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대답은 ①이다.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권력자인 촌장의 실체를 모르고 있으며,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감시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이 글에서 파수꾼은 마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을은 권력자인 촌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④ 망루는 마을의 외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이다. ⑤ 마을의 울타리 역시 감옥의 담처럼 장애물의 작용을 한다.

46.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이 글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파수꾼 ‘다’의 태도 변화를 도식화한 자료이다. <보기>에 따르면 파수꾼 ‘다’는 세 단계의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촌장의 명령에 따라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다가 우연히 울타리 바깥에 이리가 없고 흰 구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파수꾼 ‘다’는 촌장에게 이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촌장은 회유의 방법으로 파수꾼 ‘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며, 특히 비밀이 밝혀질 경우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로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파수꾼 ‘다’는 촌장의 약속을 믿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촌장의 약속을 따르고 만다.

47.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발화 의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촌장은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말하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㉔의 전후 상황은 촌장이 파수꾼 ‘다’의 마음을 돌려 비밀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후이다. 그러므로 촌장은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파수꾼 ‘나’와 마을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이런 심리와 관련지을 때, ㉔에서 촌장은 이리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오답풀이] ① 촌장은 파수꾼 ‘다’에 대해 공감하는 듯한 태도로 방심하게 만들고 있다. ② 촌장은 이리 때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마음을 살짝 내비치고 있다. ③ 촌장은 자신의 죽음을 말함으로써 파수꾼 ‘다’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④ 촌장은 파수꾼 ‘다’의 행동 변화를 위해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48-50] 과학 제재

<출전> 신영준, ‘미물이라도 지혜는 있다’

48.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핵심 정보를 바르게 파악했는지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은 거미의 집짓기를 통해서 본 거미의 생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표제로는 ‘거미의 오묘한 생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부제로는 ‘거미집에 숨겨진 비밀’을 붙여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중력까지 감안하며 집을 짓는 모습은 거미의 지혜로운 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글이 거미집을 실용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거미의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④ 부제에서 말하는 ‘거미집을 이용한 먹이 사냥’ 방법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글의 내용이 거미가 생존하는 방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거미가 거미집을 지을 때 다른 대상을 모방하는 것은 아니다.

49. [출제의도] 제시된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본문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거미를 우주선에 태워서 보낸 실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지구에서 만든 거미집은 중심이 중앙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비대칭형인데 비해 우주선에서 만든 거미집은 대칭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문단을 참조하면 이는 중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우주선에 있는 거미가 거미집의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선의 거미가 더 많은 거미집을 지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찰 방법에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주선 속의 거미가 지은 거미집이 대칭형이라는 사실이 인간의 자연 관찰 방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우주선 속의 거미가 어떤 순서로 집을 짓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⑤ 우주 실험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거미가 가장 적합하다는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이버 거미’는 거미의 생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이버 상의 거미를 말한다. 이는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거미일 뿐 자연 거미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사이버 거미’는 거미 생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된 사이버 상의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특히 본문에 제시된 실험 결과 중 거미집을 디지털화해 임시 나선형 거미줄이 만들어진 단계에 사이버 거미를 투입하면 사이버 거미가 거미집을 짓는 과정을 파악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사이버 거미’는 자신의 유전자에 입력된 정보 말고도 외부와의 관련 속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거미’에 대한 설명은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사이버 거미가 자신이 지닌 정보 외에도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맞지만, 수학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사이버 거미는 컴퓨터 안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상의 거미이기 때문에 자연 거미를 대체할 수 있는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사이버 거미는 자연 거미의 기본 정보를 넘겨받아 사이버 상에서 그것이 자연 거미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줄 뿐, 사이버 거미가 직접 사이버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연 거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